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고단2449 판결

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】 , [미간행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

외 5인

【검 사】 이지윤(기소), 이경환, 서하나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인 외 5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 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2 를 징역 8월에, 피고인 3 을 징역 6월에, 피고인 4 를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5 를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6 을 벌금 5,000,000원에 각 처한다. 다만, 피고인 2 , 피고인 3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 , 피고인 4 , 피고인 5 , 피고인 6 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 1 , 피고인 4 , 피고인 5 , 피고인 6 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피고인 1 은 치위생사, 피고인 3 , 피고인 4 , 피고인 5 , 피고인 6 은 치과의사이다.

피고인 5 는 2016. 2. 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. 1. 25.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

1. 피고인 1

가. 의료법위반(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)

피고인 1 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(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·의원)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.

1)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개설 운영

가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 피고인 3 과 공모하여, 2015. 6. 23.경 서울 강남구 (주소 1 생략) 3층에서 보철치료, 교정치료,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피고인 3 명의로 ○○○치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8. 27.경까지 피고인 1 이 위 ○○○치과 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피고인 3 은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 의원을 개설하였다.

나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 피고인 4 와 공모하여, 2015. 8. 28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 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10. 15.경까지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피고인 4 는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다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 피고인 5 와 공모하여, 2015. 10. 16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 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6. 2. 14.경까지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피고인 5 는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라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6 과 공모하여, 2016. 2. 15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 으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7. 3. 14.경까지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피고인 6 은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2) ○○○치과 □□점 개설 운영

가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 피고인 3 과 공모하여, 2015. 9. 4. 경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위 피고인 3 의 명의로 ○○○치과의원 (□□점)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12. 17.경까지 피고인 1 이 위 ○○○치과 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피고인 3 은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나) 피고인 1 은 치과의사 공소외 1 과 공모하여, 2015. 12. 20.경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공소외 1 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7. 4. 12.경까지 피고인 1 은 환자 유치 및 운영비 조달 등을 담당하면서 위 공소외 1 과 함께 위 ○○○치과 의원 □□점 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위 공소외 1 이 피고인 1 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,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나.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

피고인 1 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외 7 , 공소외 8 ,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, 2017. 3. 14.경 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 △△△점 에서 환자 공소외 10 을 상대로 공소외 8 , 공소외 9 등 위 의원의 사무보조 직원들이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, 피고인 1 이 2015. 10. 27.경부터 2016. 9. 29.경까지 위 ○○○치과 의원 △△△점 에서 환자 공소외 11 로부터 함께 3,730,000원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, 피고인 1 은 2015. 6. 주1) 경 부터 2017. 3. 14.경까지 공소외 5 , 공소외 12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투명교정, 임플란트 등 치료를 하고, 위 공소외 8 , 공소외 9 등은 위 의원에 찾아온 신규 환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.

다. 사기

1)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,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 이 개설한 의원임에도, 피고인 1 은 위 피고인 3 과 공모하여, 2015. 10. 21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소재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피고인 3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,291,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. 12.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(1) 기재와 같이 함께 29,884,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.

2)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,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 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원임에도, 피고인 1 은 위 공소외 1 과 공모하

여, 2016. 1. 29.경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소재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공소의 1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4,130,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. 4. 25.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(2) 기재와 같이 함께 204,183,4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.

2. 피고인 2

피고인은 2015. 6. 5.경 서울 강남구 (주소 1 생략) 3층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 에게 위와 같이 치과의사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료를 받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3 을 고용의사로 소개하고, 2015. 8.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4 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, 2015. 10.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5 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, 2016. 2.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6 을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여 위 피고인 1 로 하여금 위 1의 가.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3 등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위 피고인 1 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.

3. 피고인 3

가. 의료법위반

1)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개설 운영

피고인 3 은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, 2015. 6. 23.경 서울 강남구 (주소 1 생략) 3층에서 보철치료, 교정치료,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○○○치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8. 27.경까지 위 피고인 1 이 위 ○○○치과 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피고인 3 은 위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.

2) ○○○치과 □□점 개설 운영

피고인 3 은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, 2015. 9. 4. 경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○○○치과의원 (□□점)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12. 17.경까지 위 피고인 1 이 위 ○○○치과 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피고인 3 은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.

나. 사기

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,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은 의료인이 아닌 위 피고인 1 이 개설한 의원임에도, 피고인 3 은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 2015. 10. 21 서울 중구 (주소 2 생략) 소재 위 ○○○치과 □□점 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,291,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. 12.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(1) 기재와 같이 함께 29,884,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.

4. 피고인 4

피고인 4 는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, 2015. 8. 28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 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5. 10. 15.경까지 위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피고인 4 는 위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.

5. 피고인 5

피고인 5 는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, 2015. 10. 16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 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6. 2. 14.경까지 위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피고인 5 는 위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

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.

6. 피고인 6

피고인 6 은 위 피고인 1 과 공모하여, 2016. 2. 15.경 위 신사동 소재 ○○○치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,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 으로 변경하고, 그 무렵부터 2017. 3. 14.경까지 위 피고인 1 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, 직원,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, 피고인 6 은 위 피고인 1 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 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.

1. 피고인 2 , 피고인 4 , 피고인 5 , 피고인 6 의 각 법정 진술

1. 피고인 1 , 피고인 3 의 각 일부 법정진술

1. 증인 공소외 2 , 피고인 4 , 공소외 3 , 공소외 11 , 공소외 5 의 각 법정 진술

1. 증인 피고인 3 의 일부 법정 진술

1. 피고인 1 , 피고인 3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

1. 피고인 4 , 피고인 2 , 공소외 7 , 공소외 9 , 공소외 8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피고인 6 , 피고인 3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

1. 공소외 2 , 공소외 13 , 공소외 3 , 공소외 14 , 공소외 11 , 공소외 15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피고인 5 , 공소외 16 , 공소외 17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

1. 피고인 6 의 진술서

1. 압수조서, 압수목록

1. 내사보고(○○○치과 개설자신고 변경사항), 수사보고(방사선 영상 리스트), 수사보고(○○○치과 □□점 요양급여내역에 대한 수사), 수사보고(공소외 6 의 보건범죄 관련 일시 등 특정), 수사보고(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)

1.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

1. 판시 전과 : 범죄경력조회(피고인 5), 수사보고(피고인 5 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)

[1.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, 피고인 1 이 치위생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, 공소외 5 , 공소외 12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투명교정,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(범죄사실 1의 나항).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 1 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치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투명교정을 위한 치아마모나 삭제, 교정행위, 인레이 등의 보철치료,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인 1 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.

①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업무와 예방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고,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를 상대로 한 문진이나 검진, 방사선 촬영 영상의 판독, 이를 기초로 한 진단이나 진료 방법 등의 선택도 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이다.

② 교정과 관련하여 치위생사는 임시적인 교정장치만을 할 수 있고, 투명교정을 비롯한 본래의 교정장치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진료 영역이며, 투명교정에서의 치간사이 유지장치의 조절이나 고무링을 이용한 치간 사이의 조절도 의사의 진료 영역에 해당된다.

③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치위생사는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나 예방업무도 할 수 없다.

④ ○○○치과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공소외 2 와 증인 공소외 3 은 수사기관 이래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 이 투명교정과 의사가 없는 날 환자를 진료하거나 일반 환자들에 대한 문진을 하였다거나 치과치료인 충치치료를 치아삭제, 보철치료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.

⑤ 증인 공소외 3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□□지점 에서 근무하면서 상담했던 환자가 △△△점 에서 피고인 1 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.

⑥ 증인 공소외 11 , 공소외 5 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 1 로부터 임플란트나 투명교정 진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,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

⑦ 공동피고인인 증인 피고인 3 은 이 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통해 피고인 1 이 임플란트 등 의료행위를

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.

⑧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은 주로 교정을 위주로 한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나, 2015. 7.경부터 10.경까지 위 ○○○치과 △△△점 의 교정담당 의사로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17 은 수사기관에서 한달에 두 번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그런데 위 기간 동안 다른 교정 담당 의사가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. 피고인 1 도 수사기관에서 “ 피고인 3 이 근무할 때 교정원장으로 2015. 7.경부터 2015. 10.경까지 근무한 공소외 17 이 있었고... 대체적으로 보면 상주하는 대표원장 1명, 그 외 파트타임 의사 1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였다”고 진술하였다.

2.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은,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피고인 3 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치과 병원이 청구한 것인 점, 피고인 3 은 피고인 1 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하는 등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.]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가. 피고인 1 :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0조 (의료법위반의 점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, 의료법 제27조 제1항, 형법 제30조 (무면허의료행위의 점), 각 형법 제347조 제1항, 형법 제30조 (사기의 점)

나. 피고인 2 :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2조 제1항

다. 피고인 3 :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0조 (의료법위반의 점), 형법 제347조 제1항, 제30조 (사기의 점)

라. 피고인 4 :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0조

마. 피고인 5 :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0조

바. 피고인 6 :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, 제33조 제2항, 형법 제30조

1. 방조감경

피고인 2 : 형법 제32조 제2항, 제55조 제1항 제3호

1. 경합범처리

피고인 5 : 형법 제37조 후단, 제39조 제1항

1. 경합범가중

가. 피고인 1 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50조

나. 피고인 2 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다. 피고인 3 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노역장유치

피고인 1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 :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집행유예

피고인 2, 피고인 3 : 형법 제62조 제1항, 소년법 제60조 제3항

1. 가납명령

피고인 1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 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○ 불리한 정상 :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,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,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,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 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

○ 유리한 정상 : 피고인 6 은 초범인 점, 피고인 5 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

○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별지 생략]

판사 양우진

주1)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.